

반도체

8월 데이터 리뷰

- 반도체 8월 수출액: 전반적으로 YoY 하락폭 완화 지속. 9월 수출액은 분기말 집중 효과 기대
- 대만 서플라이체인 8월 매출액: 메모리 및 서버관련 부품사의 경우 뚜렷한 매출액 반등세는 부재
- 투자의견: 4분기 Datacenter 재고조정 완료와 기업향 수요 회복 기대. 업종 비중확대 유지

업종 주요 데이터 동향: 기저 형성

수출동향: 8월 반도체 수출액은 87억달러(YoY -21.2%, MoM +14.7%)로 잠정 집계되었다. 제품별로는 DRAM 18억달러(MoM +6.8%), MCP 17억달러(MoM +17.0%), NAND 5.6억달러(MoM +58.6%) 등 메모리 전체 수출액은 43억달러(MoM +18.0%)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YoY 하락폭 완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NAND의 경우 한자릿수(YoY -8.9%)에 접어들었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량증가가 동반된 영향으로 판단한다. 아직 3분기의 중반(M2)이다. 9월 수출액은 분기말 집중 효과로 MoM 상승 및 YoY 하락폭의 추가 완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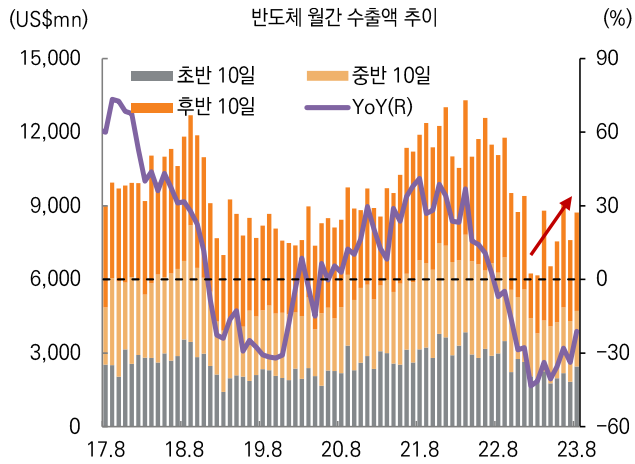
대만 월별 매출액: 대만 서플라이체인의 8월 매출액 고시가 시작되었다. DRAM사인 Nanya는 NT\$2.6B (YoY -24.7%, MoM +5.6%), Server용 부품사인 Aspeed는 NT\$243M을 기록했다. 당사가 주목하는 메모리 및 서버관련 부품사의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매출액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저를 확연히 형성한 만큼 향후 업황 개선의 뚜렷한 Proxy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 가격: 8월 메모리 계약가격의 하락세도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PC DRAM의 경우 DDR4 모듈은 MoM -2.5%의 하락을, DDR5 모듈은 MoM Flat을 기록했다. Server DRAM은 DDR4 모듈 MoM -2% 전후, DDR5 모듈 MoM Flat을 기록했다. DDR4 전반에 걸쳐 재고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산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DDR5의 경우 여전히 제한적인 초기 공급량 가운데 침투율이 상승하며 가격 하락세는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투자의견: 업황 회복 기대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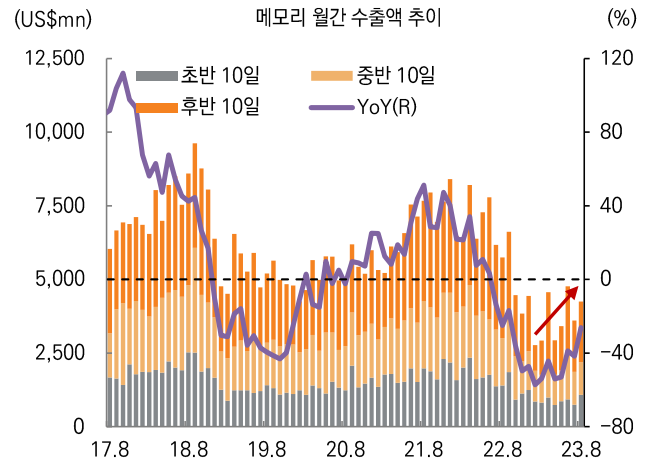
3분기말에 접어들며 전반적인 시장데이터의 하락세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지연되는 수요 회복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의 감산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다. 2분기까지의 서플라이체인 업체들의 업황 전망에 따르면 PC → Mobile → Datacenter 순의 재고 정상화 및 수요 개선이 전망된다. Consumer 제품인 Mobile의 뚜렷한 회복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4분기 Datacenter 재고조정이 완료되면 기업향 위주의 수요 회복을 먼저 기대해볼 수 있다.** Conventional 수요의 순차적 회복과 함께 AI향 초기 수요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반도체 업종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그림 1. 반도체 월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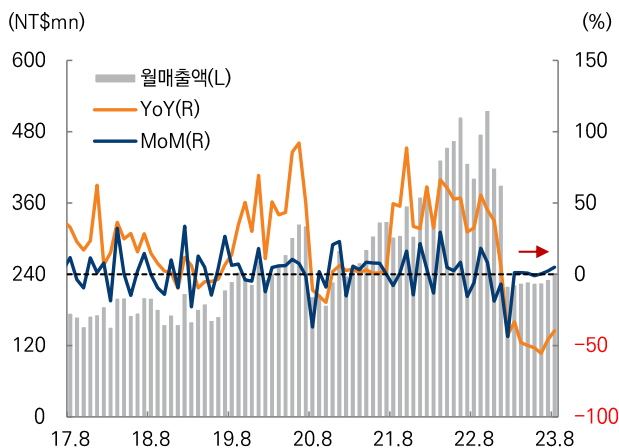
자료: Tr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메모리반도체 월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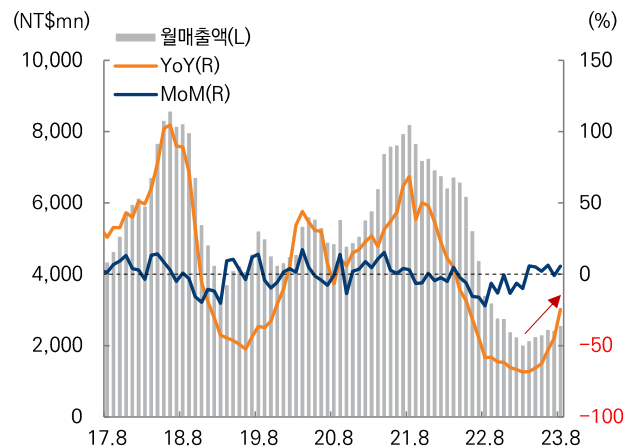
자료: Tr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Aspeed 월별 매출액



자료: eMOP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Nanya 월별 매출액



자료: eMOP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